머니콕콕

남들은 뭘 살까 #30

채권형 펀드, 북미/신흥 지역 선호도 상위

주식형 펀드 대비 채권형 펀드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12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후퇴한 영향이다(12월 금리인상 가능성 22%까지 하락[9/7일]→현재 35.5%). 미국의 대형 허리케인으로 인한 피해가 하비에 이어 어마까지 추가로 확대될 위험도 주목했다. 북한 도발이 잠복 리스크로 상존하고 있는 점 역시 연준의 금리인상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시중금리가 하락세를 이어가며 북미 채권형 펀드로 주간 기준 44.9억달러 유입, 25주 연속 순유입을 이어갔다(9월중 최저, 미국채 10년물 2.04%/3년물 1.37%). 반면 ECB는 10월에 테이퍼링과 관련한 발표가 있을 예정으로 8주만에 채권형 펀드에서 자금이 유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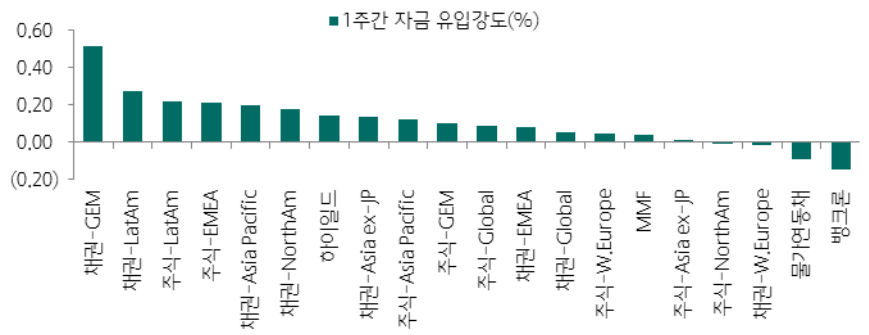
주목할 부분은 신흥 채권에 대한 자금 유입이다. 지난 주 역시 GEM과 남미지역 등 신흥지역에 대한 채권형 펀드가 주간 기준 높은 자금유입강도를 보였다. 연준의 금리인상 시점이 지연될 것으로 중론이 모아지는 속에, 주요 신흥국의 경우 추가 금리인하 여력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8월엔 인도가, 9월엔 브라질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 추가로 금리인하(인도 -10bp/브라질 -80bp 전망, Bloomberg)가 이뤄질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다. 달러 약세가 지속됨에 따라 신흥 통화 강세가 지속되는 점 역시 신흥 자산 수급에 긍정요인이다(아시아 달러인덱스 108.8p, 연중 최고점 및 2015년 이후 최고치).

주식형 펀드로 자금 유입은 지속되고 있으나 전주대비 유입폭은 상당히 둔화됐다. 다만 지난 주 WTI 기준 국제유가가 배럴당 50달러에 육박함에 따라(9/8 WTI 하락 이전), 러시아를 필두로 29주만에 EMEA 펀드로 자금이 유입되었다.

업황 호조 뚜렷한 소재 섹터, 4주 연속 자금 유입

섹터별로는 소재에 대한 자금 유입과 금융/산업재로부터의 자금 유출을 볼 필요가 있다. 중국 규제(신 수요 기대요인) 및 미국 허리케인으로 인한 공급 측 호재를 맞은 화학 업종과 달러 약세가 원자재 가격을 지지하며 소재 전반에 대한 우호적인 센티먼트가 지속되고 있다. 반면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기대 후퇴로 글로벌 리플레이션 트레이딩의 최대 수혜업종이었던 금융과 산업재에서 동반 자금 유출이 나타났다. 특히 산업재는 3주 연속 자금이 유출되었다.

글로벌 자산군별 자금 유출입 강도(주간, %, AUM 대비)



자료: EPFR, 하나금융투자

Investment Guide

MoneyFlow

주식전략 이재만
02-3771-7547
duke7594@hanafn.com

RA 문다솔
02-3771-7509
dasolmoon@hanafn.com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하나금융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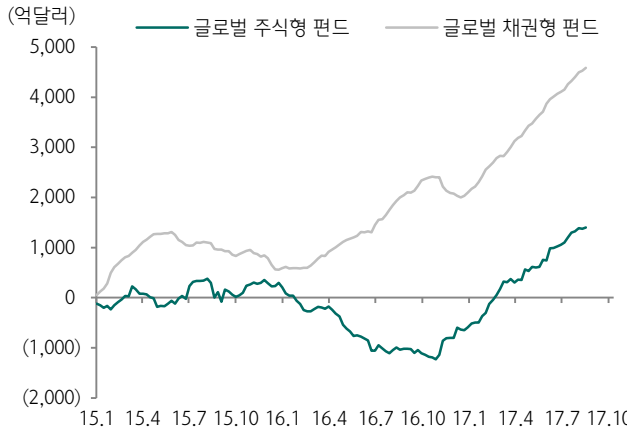
Fund Flow - Dashboard

기준: 8.31-9.6 (백만달러, %)	자금 유출입 & 강도(AUM대비)				총자산	
	주간		10주 평균		금액	연초이후 변동
	금액	강도	금액	강도		
주식형 펀드	3,725	0.04	5,193	0.05	9,774,344	1,567,044
선진	2,849	0.03	3,276	0.04	8,676,791	1,288,250
Global	1,918	0.09	2,983	0.14	2,091,239	450,894
NorthAm	(272)	(0.01)	(1,745)	(0.04)	4,765,437	485,638
W.Europe	592	0.04	848	0.06	1,324,285	261,298
Asia Pacific	611	0.12	1,190	0.24	495,830	90,420
신흥	876	0.08	1,917	0.17	1,097,554	278,795
GEM	655	0.11	278	0.04	619,241	186,168
Asia ex-JP	64	0.02	(74)	(0.02)	405,813	83,107
EMEA	87	0.21	18	0.04	41,047	2,382
LatAm	70	0.22	1,694	5.39	31,454	7,138
채권형 펀드	6,610	0.14	6,753	0.15	4,598,437	632,998
선진	4,934	0.12	5,464	0.13	4,186,836	532,976
Global	449	0.06	1,148	0.14	805,740	125,148
NorthAm	4,496	0.18	3,613	0.14	2,514,090	288,601
W.Europe	(92)	(0.01)	746	0.09	825,406	115,969
Asia Pacific	81	0.20	(42)	(0.10)	41,600	3,257
신흥	1,677	0.41	1,289	0.31	411,601	100,022
GEM	1,494	0.52	253	0.09	289,325	71,408
Asia ex-JP	123	0.14	13	0.01	91,316	21,246
EMEA	11	0.08	(13)	(0.10)	13,033	3,978
LatAm	49	0.27	1,036	5.78	17,928	3,390
상품						
뱅크론	(179)	(0.15)	(82)	(0.07)	122,203	21,433
하이일드	811	0.15	(595)	(0.11)	557,299	58,120
물가연동채	(100)	(0.09)	144	0.13	112,908	13,736
MMF	1,674	0.04	13,577	0.35	3,911,151	166,195

주: 집계되는 펀드 플로우의 특성이 정식으로 등록된 개방형 펀드(registered open-ended fund)의 비중이 높음. 즉, 실제 주식/채권 시장 규모와 달리 주식형 총 자산액이 채권형보다 높게 나타남
자료: EPFR, 하나금융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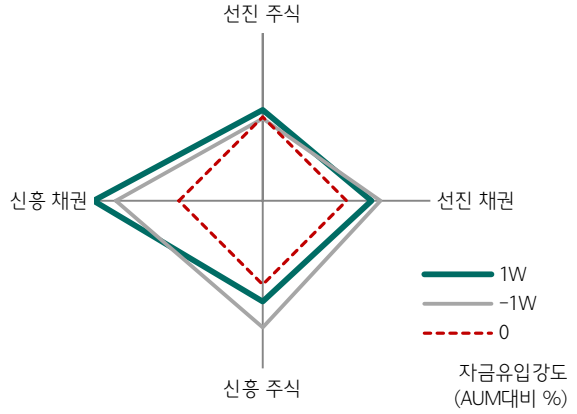
Fund Flow - Chart

그림 1. 글로벌 주식형/채권형 펀드 자금 유출입 추이(2015년 이후 누적)



자료: EPFR, 하나금융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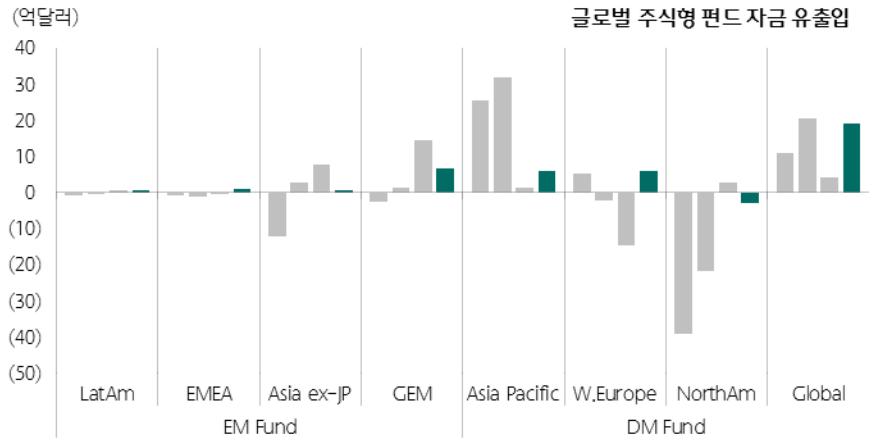
그림 2. 자금유입강도 변화 (1주전 대비)



주: 빨간선 = 기준 '0', 빨간선보다 안쪽은 자금 유출(-), 바깥쪽은 자금 유입(+)을 의미
자료: EPFR, 하나금융투자

주식형 펀드로 자금 유입은 지속되나 전주대비 유입폭은 상당히 둔화. 다만 지난주 WTI 기준 국제유가가 배럴당 50달러에 육박함에 따라 (9/8 WTI 하락 이전), 러시아를 필두로 29주만에 EMEA 펀드로 자금 유입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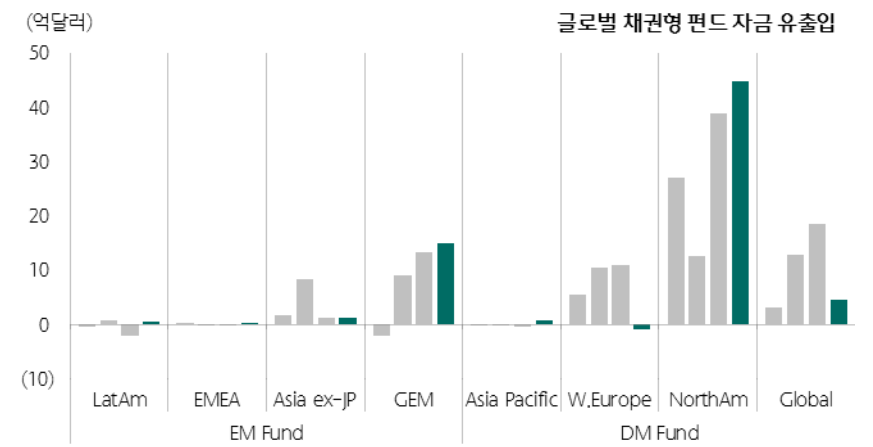
그림 1. 주식형 펀드 자금 유출입(최근 4주) - 선진국 & 신흥국



주: 진한 녹색 = 가장 최근 값(8.10-8.16)
자료: EPFR, 하나금융투자

채권형 펀드 선호도 높게 지속. 연준의 12월 금리인상 전망 후퇴로 북미 채권형 펀드에 대한 자금유입 강화. 추가 금리인하 여력 확보 및 신흥 통화 강세 등으로 신흥 채권에 대한 선호도 역시 높음

그림 2. 채권형 펀드 자금 유출입(최근 4주) - 선진국 & 신흥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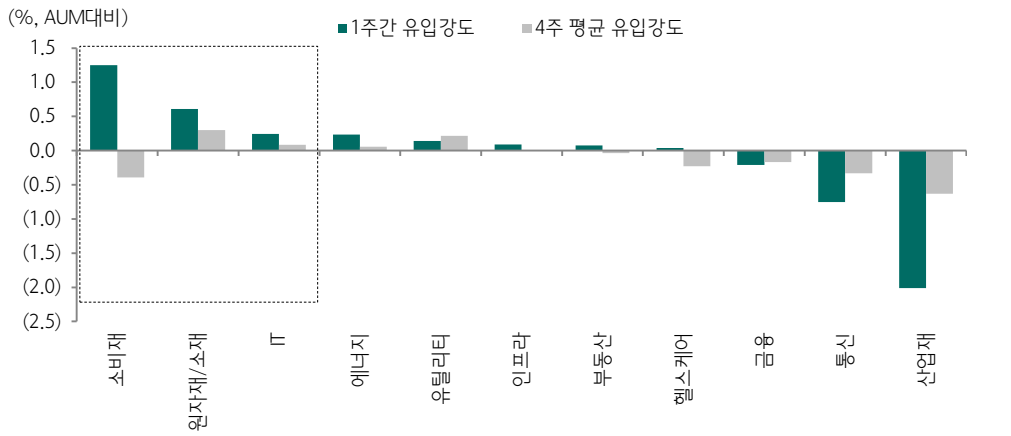


주: 진한 녹색 = 가장 최근 값(8.10-8.16)
자료: EPFR, 하나금융투자

Highlight - Sector & Style

소재 섹터, 4주 연속 자금 유입. 중국 규제(신 수요 기대요인) 및 미국 허리케인으로 인한 공급 측 호재 맞은 화학 업종과 달러 약세가 원자재 가격 지지하며 소재 전반에 대한 우호적인 센티먼트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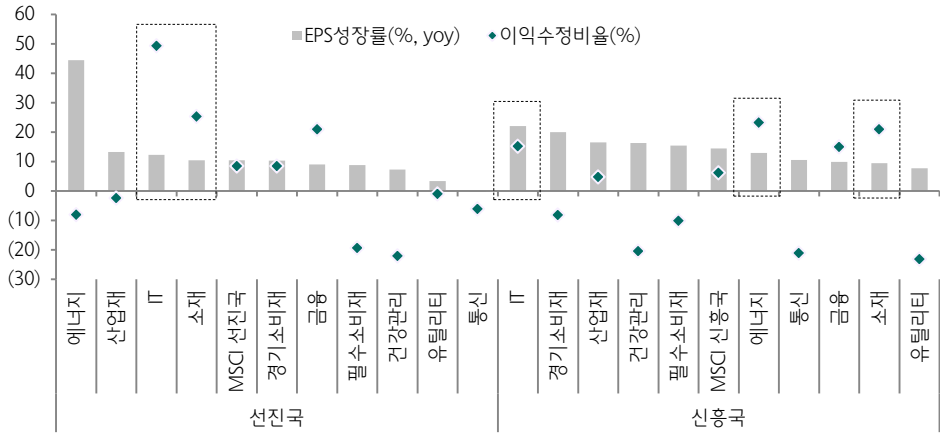
그림 5. 글로벌 주식형 펀드 – 섹터별 자금 유출입



자료: EPFR, 하나금융투자

선진/신흥 지역 모두 IT 섹터는 전체 평균 대비 EPS성장률이 높고, 이익수정비율이 꾸준히 긍정적으로 관찰. 최근 업황 호조 지속되는 소재 업종 역시 이익 모멘텀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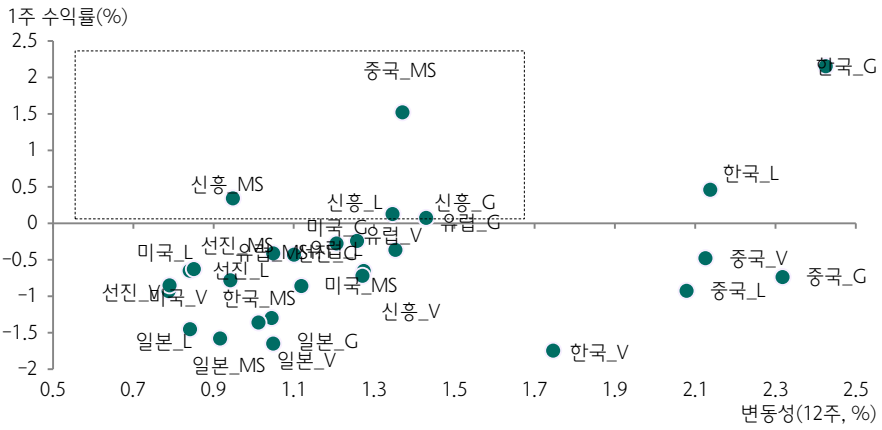
그림 6. 글로벌 주식 섹터별 EPS 성장률 및 이익수정비율



주: 이익수정비율(12개월 예상 EPS 사용) = (전월비 상향 종목수-하향 종목 수)/상향 종목수+하향 종목 수
자료: Thomson Reuters, 하나금융투자

브라질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단행 및 원자재 가격 호조 등 원자재 신흥국 중심 신흥증시 부각. 사이즈별로는 중국의 중소형주가 높은 수익률 보이며 신흥국 내 대형주 대비 중소형주의 상대 수익률을 제고

그림 7. 글로벌 주식시장 스타일별 움직임



주: L=대형, MS=중소형, V=가치, G=성장
자료: Thomson Reuters, 하나금융투자